

‘환관속 東大’  
발전 견인 코드는?

## ‘효율적 의사결정 시스템’이 해답

동국대가 '신정아 사건'의 후폭풍에 휩싸인 가운데 halo 모색 요구가 거세다.

예술대 등 6개 단과대학 모임인 '좋은동국인들'이 운동본부와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0월 31일 본관 앞에서 "학교운영 정상화를 위해 대학 구성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정아 사건"은 초기 임용과정에서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지만 재단 이사회와 종교적 파벌 대립, 정치권력의 외압으로 이런 비판이 무시됐다며 "이사장의 퇴진을 비롯해 현 이사회의 인적쇄신과 대학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적 대학운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학교 내에서는 오영교 총장의 밀어붙이기식 학사 행정에 대한 강한 반발이 제기되고 있으며 의사결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11월 2일 정오 현재까지 이사회가 별다른 '결론'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학내의 불협화음은 높아만 가고 있다. 동국대의 '불협화음'은 어디서 왜 일고 있는지 진단해 본다.

### 성과평가제도 시행 반발 예상

동국대는 올해 하반기부터 웹(Web)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Real Time) 성과평가제도 및 차등보상제도를 시행한다고 11월 1일 밝혔다. 고객과 성과중심의 신 경영시스템 창출을 위한 '108 프로젝트'의 일환인 성과평가제도 및 차등보상제도는 유비쿼터스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평가 관리하고 그 실적에 따라 단과대학 및 개인에 대한 보상을 차등화 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동국대 교수회 비상대책위원장인 정재형 교수(연극영상학)는 "오영교 총장의 정책은 경영마인드를 변용해 학교에 끼워 맞추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며 "서열화된 결과에 따라 모든 보상을 차등 배분한다는 것이 원칙인 현 평가시스템은 생산현장이나 맞는 방법이지 대학에는 맞지 않는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법대의 또다른 한 교수는 "교수들이 평가 자체를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른 시행을 원하는데 총장은 대학사회에 어울리지 않는 관료적 태도로 학내 구성원 위에 군림하며 구성원들과의 합의 없이 정책을 시행하고 이에 반대하면 학교발전을 저해하는 집단으로 매도



10월 31일 '좋은 동국 만들기 운동본부' 소속 학생들이 학교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명을 요구한 교직원도 "성과평가제도 및 차등보상제도 시행은 언론을 통해서 알았으며, 학교측이 교직원들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한 바 없다"며 "일방적인 행정 시행은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류번성 과장(전략홍보실)은 "반대·반발이 강한 동국대 구성원의 성향을 감안해야 한다. 실시간 성과평가제도는 오영교 총장이 평소 전달했던 내용으로 학내 네트워크에 이미 공개된 것"이라며 학내 반발을 일축했다.

### 교직원 파격 배치 되레 역효과

학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10년차 이상의 과장급을 일선 장구에 배치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굳이 직원을 떨어뜨려 직원 개인의 능력발휘를 저해하는 것이 과연 조직운영에 도움이 되겠는가"하는 교직원들의 의견이다. 일선 장구 업무는 과거 조교나 사환도 가능하던 업무다. 굳이 계장 과장 들을 일선배

치 한 형태는 구조조정과 관련 지속적인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고 외부로 보이기 위한 전시행정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인 교직원들의 시각이다.

### 고객중심 성과제 학생에 편중

고객중심 성과제는 시행초기 명칭에 따른 거부감이 있었지만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과거 여러 장구로 분산돼 있던 학생들의 민원을 체계적으로 수용, 처리할 수 있도록 했고 상시 만족도 평가를 통해 신속하게 피드백을 받

고 있다. 평가항목은 신속도, 정확도, 이해노력정도, 체감만족도를 체크하고 있는데 민원자들의 응답은 "이런 것이 있어 좋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까지 전체 민원건수 159건 중 114건이 응답했고 만족하다는 응답율은 85.17%다. 이 서비스는 현재 타대학들도 벤치마킹 중이다.

또 11월 중순이후부터는 학생 교수 직원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CRM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일반기업체에만 있었던 서비스 메뉴얼도 12월초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대고객중심 성과제에 대해서 다수의 학생들은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시스템을 갖춘 것만으로도 만족한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일부 교직원들은 이제도는 고객을 학생만으로 생각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며 교수와 교직원 등 내부고객에 대해서는 원천만 있을 뿐 이들을 위한 제도는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류번성 과장은 "이는 인식의 차이로 CS는 새로운 변화다. 불만이 있지만 지금은 설득해 가는 과정"이라 말했다.

### "구성원 한자리 모여 대화"

교수들은 총장과 대화를 원하고 있다. 열린 광장에서 학내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대토론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10월과 11월 두 차례 보냈지만 총장은 몇몇 대의원만 만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과대의 한 교수는 "원만한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은 중강당에서 교수는 총장실에서 만나려 하지 말고 학내 전 구성원이 함께 하는 대토론회의 자리에 나와 하심탄회한 대화를 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정책의 중요성을 구성원들에게 알리고 합리적인 접점을 찾는 효율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강화만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국대가 조계종 종합대학으로서의 권위와 100년 사학의 전통을 새로운 100년의 희망으로 가꿔가기 위해서는 보다 열린 행정 시스템 속에서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화합을 우선하는 마인드 제고를 해야 한다는 게 불교계의 주문이다.

김주일·조동섭 기자

### 신임이사 선출 등 무산

동국대 재단이사회는 12월 2일 제233회 회의를 열고 임기가 만료된 이사 후임을 선출하려 했으나 전으로 예정됐던 2명의 개방형이사 선출이 무산됨에 따라 치기로 안건을 이월했다.

김주일 기자

## 동국사 400년전 복장유물 공개

사리·후령통·경전 등 300여점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취급업무◆  
민사·형사  
가사·영정

법률사무소 서안  
전 화 031387-5400 팩스 031387-5409  
유대문 010-7504-4521 (경명화 변호사)  
017-535-0685 (장원현 변호사)  
010-4488-3740 (김희선 변호사)

라니경>과 보합진언 216장, 1650년 작성된 발원문 등 300여점이다.

후령통에서는 무지개빛을 발하는 붉은색 사리 1과와 오색 비단천, 오색 명주실, 각종 씨앗, 꽃씨, 찰보, 사용하지 않은 다종이 전지 등이 나왔다. 발원문에는 '순치7년 9월 2일 금산사 봉안'라는 조성연대를 알리는 글이 적혀 있다.

학계에서는 이번 유물 공개가 17세기 중반의 불교사, 직물사 및 목판본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전라북도도는 문화재적 보존 가치가 높은 이 유물들을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군산 동국사에서 발견된 유물 모습.

Tip 후령통은?

후령통(候鈴筒)은 복장을 넣는 통으로 보통 불상에 원통의 형태가, 불화에는 사각형의 형태가 사용된다. 복장은 불상이나 불화 등을 조성할 때 함께 넣는 금·은·찰보 등의 보물과 오곡(五穀)·오향(五香)·오약(五藥) 등을 이른다.

## 40년 만에 베일 벗은 '묵서지편'

세계 최고(最古) 목판인쇄물로 알려진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함께 발견됐으나 40년간 베일에 가려졌던 '묵서지편(묵글씨로 쓴 종이조각)'의 비밀이 공개됐다.

중수기(重修記)로 알려진 '묵서지편'은 1966년 10월 13일 석가탑 탐신부 2층 사리함에서 발견됐으나 '묵서지편'이라는 이름만으로 존재한 채 40년 가까이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 보관 돼 있던 국보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홍남)은 10월 27일 박물관 소강당에서 110장에 이르는 묵서지편에 대한 관독과 연구 작업을 마치고 그 내용을 공개



불국사 석가탑에서 발견된 묵서지편 일부.

했다. <관련기사 6편>

조동섭 기자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100% 천연

- ❖ 산야초 오곡조청 1.2Kg - 48,000원
- ❖ 산사 참 울 조청 1.2Kg - 현 시세
- ❖ 산사 약도라지 조청 1.2Kg - 현 시세

불자님들을 위한 정성 산사조청원  
주문처 054-372-3166  
입금계좌 : 농협 727077-02-056761(예금주: 현승희)

▶ 지편안내  
선지식을 찾아서 (11편)  
-도명 스님 (관주 승광사 주지)

## 부처님 가피가 함께 하는 절 기원사 산사음악회

2007 우리동네 어울음악회 - 기원사와 함께 하는 노래가 있는 저녁

기원사의 30년 역사는 우리 동네의 아름다운 주민들이 함께 일궈 온 따뜻하고 보람찬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의 노고와 다가올 시간의 희망을 함께 가꾸어 보는 노래잔치를 마련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이 멋진 시간엔 정태춘 박은옥 부부의 화음과 유진박의 화려한 전자바이올린 선율이 함께 할 것이니 우리 동네는 하루저녁 극락 세상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을 이 기쁜 자리의 주인공으로 초대합니다.

원장 지연 합창

2007 우리동네 어울음악회

일시 | 2007년 11월 17일(토) 오후 5시 기원사 경내

식순 | 1. 개회-사회 : 김병조 2. 주지스님 인사말씀  
3. 크스님 축사 4. 공연

출연진소개 | • 사회 : 김병조  
• 정태춘 박은옥  
• 조석호(중요무형문화재 제20호 대금정악 이수자)  
• 안희진(경기소리 중요무형문화재 제31호 이수자)  
• 크레이션 • 파파사(40대 동방산기) • 기원사 합창단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392-106 TEL 02)918-0034